

법무매거진

서로 가려는 지원장 자리... 김명수 '내사람 챙기기'



지난 2월 4일 대법원이 발표한 인사와 관련해 두 명의 지원장 임명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선호 직역으로 꼽히는 지원장 자리 두 곳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인권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통상적인 인사 패턴을 깨고 임명됐기 때문이다. 두 모임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기 사람'을 챙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원장은 2년 임기 동안 기관장 지위를 누리면서 재판 부담은 적어 판사들이 선호하는 보직이다. 각 연수원 기수에서 선두 주자가 차지하곤 했다. 전국에 총 41곳의 지원장 자리가 있는데 이번 인사에서 총 23명이 신규 임명됐다.

논란이 되는 곳은 성남지원과 고양지원으로,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지원 규모도 큰 편이라 '지원장의 꽃'으로 꼽힌다.

박양준 신임 성남지원장은 2018년부터 3년간 서울행정법원, 1년간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한 후 이번에 지원장이 됐다. 한 법원 관계자는 '선호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서부지법에 간 것도 이례적인데 1년 뒤 지원장까지 된 것'이라고 했다. 박 지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2020년 개천절을 앞두고 보수단체가 '드라이브스루' 집회 금지 처분을 풀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신진화 신임 고양 지원장은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지원장을 두 번째하게 됐다. 그는 2015년에도 영동지원장을 지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지원장을 두 차례나 한 것은 김 대법원장이 배려를 해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정기회의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년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인권법 핵심으로 꼽히는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과거 부천지원장을 지냈는데도 2020년 부산동부지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오성우 부장판사는 같은 해 원주지원장이 됐다. 한 부장판사는 “지원

장 인사가 김명수 대법원에서는 ‘자기 사람 챙기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출처/조선일보)